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東鎬
主幹 廉弘燮
編輯委員 廉南燮
〃 廉敏燮
〃 廉宗桓
印刷人 李承均

坡州廉氏大宗報

우편번호 133-00
서울特別市城東區聖水洞1가656-980
電話 463-1104

第2號

1983년 5월15일 大同譜編纂事業이 발족한 이래 지금 만2년9개월이 경과되었다。

그간 각 宗親會長님들 비롯하여 각 收單委員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의 族譜가 발간된 것은 1704년 甲申創刊譜이후 1974년 甲寅譜까지 무려 14회에 걸쳐 大同譜및 각종 派譜가 발간되었으나 이를 詳考해보면 아쉬운점과 모순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첫째, 譜牒編纂당시 未收單者는 前譜에 登載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어 지금그 후손들이 先代를 찾는데 혼미를 초래케한 점과,

둘째, 生卒年度를 廟號없이 干支로만 기록되었으며 干支의 誤記로 인하여 부자, 형제간이 50~60年差가 많았고,

셋째, 누차 編譜로 인하여 先代未詳인 자손들을 自派에 連系시켜 놓으므로써 그 후손들이 先代를 찾는데 혼선을 빚어내게한 점들이다。

今譜編纂은 이러한 前轍을 밟지않기 위하여 前譜를 기준하되 확실한 考證이 발견되면 考證에 의하여 正統을 찾아 連系하였으며, 生卒年度를 西紀로 換算記錄하되 부자, 형제간의 生卒年度가 불합리한 부분은 부득이 譜所에서 수정하여 合理化하였으며, 未收單者라 할지라도 前譜에 登載된 분은 全員 登載하였으며, 舊譜上의 行蹟記錄은 타당여부를 정밀심사하여 登載하고 보편적인 것은 이를 삭제하였으며, 경력은 擇一記載, 표창은 大統領표창, 孝烈은 郡守以上 표창에 한하여 登載하였으며 募所사진登載는 7世이상으로 集團募所라 할지라도 7世祖以下는 생략하였고, 大宗會事業, 都先山事業, 大同譜編纂時 50만원이상 희사자는 門中貢獻編에, 행정적 사무관이상 자는 登載申請者에 한하여 登載키로 규정하였다。

당초 2만6천명으로 추정했던 인원이 현재 5만餘數가 참여하였으며, 또 先代世數 行列들이 불명한 宗親들이 今譜發刊으로 인하여 확실시되었고, 소식이 두절되었던 近親들의 행방을 찾았으니 宗親간의 敦睦은 물론 앞으로의 宗事에는 大同團結이 될것으로 믿어진다。

이 모든점을 감안할때 今般大同譜編纂은 대성과를 거두었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다만, 아쉬운점은 譜牒申込率이 4%로 극히 저조한 점이다。과거 族譜를 모셨던 예로는 자기의 先代와 系統만 알면된다는 사고방식으로 한 大小家에 宗家에서 한帙만 모셨던 舊時代的 감각을 탈피하여 대대로 계승해온 혈통과 系代는 물론 家訓, 先祖의 忠孝烈의 역사적 업적을 詳考하고, 이를 본받게 하는데 族譜의 意義가 있다고보며 또한 父兄된 분으로서는 家門의 內譯을 후세에게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았을때 이 기회에각 가정마다 譜牒을 모시어 후세들로 하여금 民族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愛族心을 고취케 하므로써 父兄된 책무를 다할것으로 思料된다。

今譜는 이 모든점을 감안하여 국졸정도의 학력소지자라면 누구나 解得할수있게 原文과 解釋文을 併載하였다。

今般 族譜編纂課程에서 宗親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으로생각된점은 인쇄업자의 선정과 譜牒配本時期의 연장으로 思料된 바입니다。

大同譜編纂現

收單마감일 및 收單入手 人員數

▲1차마감 (84・10・30)	▲2차마감 (85・3・31)	▲3차마감 (85・8・31)	▲현 재 (86・2・20)
3만5천4백12명	4만9백45명	4만3천64명	4만6천5백36명

首丘初心

廉泰勳 (初代 大宗會長・現 서울宗親會長)

1980년 제가 서울宗親會를 맡고있을당시 그해 7월에 전국의 宗人代表를 모이게 하여 제가 관계하는京畿道 楊州郡 水同面유지와 3형제분의 묘소 원지에서 大宗會發起人가 비록 南韓에는 없지만 宗親會를 갖고 當年11월 11일에 全國中 우리廉氏人口數도 제일 많고 이 마땅한 道理라는 衆論이기에 羅州都先山이 適地라는 임원들의 판단아래 全國有志의 정성어린 성원으로서 마침내 일단 성공적으로 設壇事業을 마무리짓고 다음 30년만에있는 族譜編纂事業을 現會長 東鎬氏가 맡게되어 그간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물리치고 아마도 금년8월이면 완성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할일이 너무나 많다고생각합니다。大宗會의 자기사무실마련, 育英事業 그리고 祭閣建設事業등이 그것이라고 하겠읍니다。

敬祖思想이 감한 光州廉氏가 비록 南韓에는 없는 대한민국 평소 敬祖의뜻을 우리後孫들이 表함 이는 他姓氏로서 敬意를 표하며 방방곡곡에 宗報를 愛讀하시는 우리 일가분이 많이 늘어나기를 祝願하는 바입니다。

忠敬公할아버지의 後孫들에게 무엇인가 자랑스런 업적을 남겨놓음이 우리들의 責務라고 생각합니다。다행히 우리 廉씨는 파벌이많지 않고 단결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수있읍니다。

首丘初心이란 서로 뿌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더욱 和合團結하여 역사적으로 榮光있는 廉氏가 再創造되겠금 다같이 힘써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宗報發行에 夙夜로 수고하시는 幹部諸位께 충심으로 敬意와 謝意를 표하며 방방곡곡에 宗報를 愛讀하시는 우리 일가분이 많이 늘어나기를 祝願하는 바입니다。

1986年3月29日 (토요일) 坡州廉氏大宗報 第2號

主幹의 당부

①本報發展을 위하여 앞으로 讀者여러분의 많은 投稿있으시기를 바랍니다。

②本報는 서울地區를 제외하고는 地方實情에 맞추어 發送되고 있사오니 신속공정한 配付를 바라고 있읍니다。

③다음 宗報發行은 오는9월로 예정하고 있사오니 많은 聲援 바랍니다。

近況

인쇄업자의 선정은 指名入札方法으로 국내에서 族譜印刷의 명문인 大田지구에서 2개소、光州지구에서 3개업소의 견적을 받아 最下價인 光州 朗州印刷社가 낙찰되었으며、譜牒配本時期가 3회나 연장된 것은 종사원의 인력부족(월평균 5·5명常勤) 收單의 지연제출、짜집기 이후의 上系連系변동등으로 인한 막대한 업무량증가로 3회에 걸쳐 연기된점 무한히 송구스럽게 여긴다。소수인원으로 90여권에 달하는 前譜의 移記 近1만여매의 收單表를 대조하여 중복、낙찰등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정리작업이 끝이나 印刷에 착수하였든바、상·중系의 異議變動으로 인하여 재정리작업이 1·2차뿐만이 아니어서 인쇄과정과 원고제출의 차질로 부득이 인쇄를 중단하고 말았었다。

입수한 收單表와 前譜移記分을 대개 정리한 결과 文獻錄 1卷(1천2백30頁) 孫錄6卷(6천8백36頁) 附錄一卷(1천1백頁) 計8卷(9천1백66頁)에 달하고 있다(당초 금액6만원에는 영향없음)。

우리의 族譜事業이 83년7월부터 12월까지는 收單을 받기 위한 기초작업이었고、84년1월부터 지금까지 만2년2개월、懸板式目로부터 만2년9개월이 경과하였고、本譜配本時期를 8월말로 예상한다면 만3년3개월에 大同譜가 완성된 셈이된다。

참고로 다음 업무추진표를참작하고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란다。

上記수치는 收單金 납부자이며 이외 생계곤란으로 收單金면제자、미수자、在北및 해외거주자를 포함한다면 5만여수가 된다。

이렇게 3차에 걸쳐 收單마감을 연기한것은 우리는 貴姓으로 더욱이 30년만에 편집한 大同譜로서 宗親 한분이라도더 참여케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도 다수 宗親들이 불참하고 있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나 작업진행상 더이상 연기할수없어 마감을 하였다。

以上 그간의 經過狀況을 報告하오니 널리 諒察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推進表

順位	業務內容	期間	備考
1	懸板式 擧行	83·5·15	
2	世系表 作成및 從事員 物色	83·6·30	譜所任員(常勤者)
3	世系表 作成및 運營規程制定	83·9·30	收單委員 選定
4	世系表追錄作成	83·12·30	甲申譜以後 甲午譜基準
5	舊譜積記및 收單接受	85·8·30	文獻錄·附錄
6	짜집기 作業 印刷原稿 校正	85·9·1 86·1·31	文獻錄·孫錄첫卷印刷 孫錄둘째卷 初版
7	짜집기 再校正	86·2·1 86·4·15	生卒年度 合理化作業 짜집기原稿복사 配本으로 2차校正作業
8	印刷作業	86·4·16 86·8·15	再校및 完校作業
9	族譜配本	86·8·30	

祝 發展

國會議員 廉吉正

辯護士 廉東鎬
서울特別市鍾路6가289-3
東大門綜合市場A棟 620호
東部合同法律事務所
電話 269-8440

司法書士 廉昌勳
서울特別市太平路2가 69-20
太平빌딩 202호
電話 753-3930
755-1081
776-9104

三洋建設合資會社
代表 廉敏雄
春川市中央路2가 92
電話 2-2091
2-4390

나의 廉氏觀

廉弘燮（大宗會총무·本報 主幹）

나는 어렸을때 5百餘年된 舊산소가 서울郊外 구파발墓에 있었음으로 秋夕、寒食에는 우어른을 따라 省墓를 하는 慣習에 젖어있었다。省墓를 마친 歸路에는 哲宗大王의 生母(廉氏)를 모신 弘濟洞附近에 所在한 墓所에도 가끔 參拜하기도 하였다。

當時 普通學校(現國校)中學校(現 高校)를 거쳐 日本 東京에 있는 大學時節에도 그렇게 많은 校友들 中에도 우리 廉氏의 姓을 가진 사람은 不過 한두사람 밖에는 눈에 띄지 않았을뿐 아니라 新聞記事에도 廉氏姓을 가진 사람을 좀처럼發見할수가 없어 적막感이 있었다。當時 生存해 계시던 웃어른께 우리廉氏는 왜 이렇게 人口數가 적으냐고 여쭈어 본즉 高麗末期에 우리 廉氏는 貴族이었으나當時 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新興勢力에 對抗하는 強한 標的이 되어 그 後로는 많은 우리 祖上들이 虐待를 받아 自然 氏族이 적게 되었다는 것이다。

故 廉昌烈변호사(當時 檢事初年生)는 이 말을 듣고 그後 이 數年前 이야기이지만 내가 地方勤務中에 當時 집의 先親이 살고 계시던 鍾路3가 뒷골목을 지나 들어서면서 서울宗親會 會 總務職을 맡고 있는 老少를 가리지않고 貧富의 距離없이 뿌리를 찾고자 찾아와 心血을 기울이는 聖스러운 모습을 對할때마다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제는 뒤늦게나마 所謂 成辰之禍라는 歷史的背景과 그 原因과結果도 어느程度 알게되었음은 平素 宗親會에 對한 關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무척 多幸스럽게生覺하고있다。

宗報는 우리 坡州廉氏에 對한 歷史와 現況을 널리 認識시키고 中央·地方間의 血緣的紐帶를 鞏固히 하기爲한 趣旨로 지난해 7月에 創刊號 3千3百部를 發行하여 全國宗親會에 無償으로 配付한바 있으나 積極的인 呼應度가 微弱한 感을 주고 있음은 遺憾之事이라고 生覺한다。

아직도 新聞雜誌에 廉이란 姓氏가 나타나면 두번、세번 다시 보곤 하는 心情이다。이는왜 이럴까? 單一本으로서 흘러간 그 옛날에 歷史的인 大宗會 創立이란 歷史를 마련하게 되었다。

創立卽後 첫 大宗會事業으로 各地 有志의誠金으로 羅州都先山에中始祖 忠敬公할아버지를 비롯한 菊披公、東亭公、淸康公 三兄弟분의 設壇事業을 成功的으로 一段落지었음은 우리의자國 地方宗親會를 總網羅한 大宗會創立이란歷史的인 宗人間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廉氏에의 氏族意識 가슴깊이 스며
宗親會 育成發展에 적극 參與를

우리 坡州廉氏의 始祖는 누구시며 또 史料에서 廉姓을 가장먼저 가졌던 분은 누구시었을까 하는 점에關해 考察해 보고자한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史料로는 高麗仁宗代 金富軾이 撰한 三國史記와 高麗忠烈王때 僧一然이 撰한 三國遺事가 있고 中國側의 史料로 오래된 것으로는前漢時 司馬遷의 史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關한 記錄은 적은 편이고 晉나라陳壽가 지은 三國志中 魏志東夷傳에 의해 學者들은우리의 上古史를 많이 考察하게 된다。

또 위 東夷傳을 註한 裴松之의 記錄과 魏나라 魚豢의 魏略等은 貴重한 史料가 되고있다。이 魏略에 보면

『王莽地皇時廉斯鑠爲辰韓右渠帥聞樂浪土地美人民饒樂亡欲來降出其邑落見田中驅雀男子一人其語非韓人間之男子曰我等漢人名戶來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爲韓所擊得皆斷髮爲奴積三年矣 曰我當降漢樂浪汝欲去不戶來曰可辰鑠因將戶來出詣含資縣縣言郡郡卽以鑠爲譯從萃中乘大船入辰韓逆取戶來降伴輩尙得千人其五百人已死鑠時曉謂辰韓汝選五百人若不者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辰韓曰五百人已死我當出贖直耳乃出辰韓萬五千人弁韓布萬五千匹鑠收取直還郡表鑠功義賜冠帽團宅子孫數世至安帝延光四年時故受復除』라는記錄이 있다。要略하면「王莽地皇時(西紀20~23)에 辰韓(지금의忠淸道以南地域)의 右邊君長이었던 廉斯鑠는 樂浪(지금의 平安黃海道地方)의 土地가 기름지고 백성들이 豊饒롭게산다는 말을 듣고 移住하고 자가던중 한男子가 밭에서 새를 쫓고 있기에 물으니 戶來라 하는 漢人인데 同輩 千五百人과 함께 材木을 伐採하려 왔다가붙들려 머리를 깎고 종이된지 3年이나 된다고 한다 鑠가 말하기를 내가 樂浪으로 가는데 함께 가겠느냐고 물으니 가고싶다고해서 데리고 含資縣(지금의 黃海道瑞興郡地方)에 가서 事實을 告하니 郡에서는鑠를 使譯으로 삼아 萃中(黃海道海岸)에서 大船을타고 辰韓에 들어가 談判하여 戶來의 同輩中 生存者 千人을 取하고 已死者 五百人에 對하여서는 賠償으로 辰韓人 萬五千人과 弁韓布 萬五千匹을 받아 돌아오니 郡에서는 그 功義를 表하여 冠帽와 田宅을 賜하였고 그後 子孫들은數世에 걸쳐 安帝延光4年(西紀125年)까지 賦稅가 免除되었다。」라는 記錄인바 또 海東譯史(朝鮮正祖때韓致奫지음)에는 위 記錄에 이어「按後韓書建武中韓廉斯人蘇馬諟來獻光武封爲廉斯邑君則廉斯本邑名而爲氏也鑠集韻云洞角切人名王莽時有廉斯鑠」라고 하였는바 要略하면「後漢書를 詳考하면 建武中(西紀25~55年)에 韓의 廉斯사람 蘇馬諟가 來獻하니 光武(西記24年)가 廉斯邑의 君에 封하고 廉斯는 本來 邑名이였는데 廉으로 姓을 삼았다」라고한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史料에의해 아는것으로 韓半島에서 最初로 廉姓을 쓰신 諱 廉斯鑠는 廉姓의創始祖로 記錄되고 三國遺事와 東史綱目(肅宗때 安鼎福지음)에 있으며 新羅 佛敎九世에 걸쳐 安帝延光4年(西紀125年)까지 賦稅가 免除되었다는 것이다。

그後 新羅 善德女王때(西紀647)에 國政을 바로 잡으려다가 毗曇과 함께 被誅된 大相 諱廉宗에 關한 記錄이 三國史記에있고 新羅 眞德女王때(西紀647~654)大臣으로 六公의 한사람인 諱廉長에對한 記錄이 三國遺事와 東史綱目(肅宗때 安鼎福지음)에 있으며 新羅 佛敎九

創姓祖·始祖에 關한 考

廉宗桓

廉姓은 諱 廉斯

中始祖는 나타난 記錄 참고할때
「高麗祖 以前분」으로 推定돼

三韓때부터 韓半島 土着
鎖를 廉姓의 創始로봐야

(本報 編輯委員)

史的 受難을 겪었던關係로 人口數가 적은貴姓이기 때문에 自然的으로 우러나오는 가슴의 鼓動이라고 하겠다.

우리 氏族의 全國人口數는 不過 7萬程度로 推算되는 環境이므로 우리는 다같이 合心하여 지난 5百餘年 동안의 그 어려웠던逆境을 물리치고 굳건히 살아온 矜持로서 宗親會에 對한 깊은 關心을 갖고 이 社會에서 흔히 볼수있는 얄팍한 對抗意識이 아닌 어디까지나 協助精神으로서 다른 民族團體에 比하여 遜色됨이 없도록育成發展에 積極 參與하여 앞으로 있어야 할 自己事務室마련(現在는 傳貰), 育成事業等等 諸事業을 우리의 힘으로 圓滿히 推進하여 나갑으로써 우리 後孫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간절하다.

察

山禪門의 하나인 迦智山派 道義에 이어 二祖가 된후 文聖王六年 (西紀844年)에 涅槃한 韓廉巨和尙의 浮屠가 近年에 와서 江原道 原州郡지정面안창里所在 傳興法寺趾에서 誌板과 함께 發見되어 現存하는 國內最古의 八角石塔이 國寶百四號로 指定 國立博物館에所藏되었다가 아들 하나를데리고 脫出하여 白髮이 되어 왔으니 可憐할에 舊業田廬를 돌려 주라고 文宗이 制하였다」라는 記錄에 서 보는바와 같이 始祖韓國博士의 官職이 外國功臣으로 褒賞된 韓廉湘과 高麗太祖11~20年間에大相 韓廉卿과 韓廉相에 關한 行狀史實이 連綿不絕하고 있다.

우리 坡州廉氏族譜 英祖29年의 癸酉譜(西紀1775年)부터 最近의 甲午譜까지 始祖로 모셔온 韓邢明에 關한 史料로는 高麗史卷七에서와 高麗史節要卷四에 있는데 原文을 옮기면

『十年丙申二月甲午有司奏沒蕃人廉可稱軍器丞位之子三韓功臣司徒邢明之孫於庚戌年中充環衛公子軍役契丹兵闖入京城震驚奉二親避兵于故鄕峯城懸道遇賊被虜而去清寧元年正月携一子亡來請可稱父祖永業田舍並令還給制曰可稱功臣苗裔子年被俘棄蕃土妻兒惟携一子皓首而歸深可憐憫可給舊業田廬(高麗史)』

『十年春二月有奏沒蕃人廉可稱三韓功臣邢明之孫庚戌年円兵闖入京城可稱奉二親避兵遇賊被虜清寧元年正月携子亡來其父祖永業田舍並宣還給從之(高麗史節要)』

이 두史料를 要略하면 「高麗第11代文宗10年丙申(西紀1056年) 春2月에 有司가 奏하기를 蕃人에게잡혀 갔던 廉可稱은 軍器丞位의 子이고 三韓功臣司徒邢明의 孫인데 庚戌年中(西紀1010年)에 環衛公子의 軍役에 充當되었다가 契丹兵의 京城侵入으로 二親을 모시고 故鄕인 峯城縣(지금의 坡州郡)으로避하려다 途中에서 被虜되었다가 淸寧元年正月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탈출하여왔으니 父祖의 永業田舍를還給하소서 했드니 可稱은功臣의 苗裔로서 丁年에 被髮(60~70歲)이 되었다면 始祖의 出生年은 언제였을까 하고 아무리 計算해보아도 高麗太祖 王建의 即位年인 西紀918年보다後年이 된다. 換言하면 王建이 42歲때 始祖는 出生하시지도 않았다면 1857年의 丁己譜부터 甲午譜까지 二世祖韓位의 형제분으로 모셨던 韓相은 물론大相廉鄕은 始祖보다 先代의 분으로 될것이고 高麗太祖보다 훨씬 後世에 出生한 始祖의 벼슬이 三韓功臣으로 司徒였다면 史實上 矛盾되는 點이 많다.

即 高麗史 百官志에 보면 高麗初에는 司徒라는벼슬이 없었고 第11代文宗以後 다시말해 始祖의 孫子분인 韓可稱의 老年期에서야 三公의 벼슬인 正一品司徒라는 官職이 있었으니 文宗以前분인 始祖의벼슬이 三韓功臣으로 司徒였다면 史實上 矛盾되는 點이 많다.

即 高麗史 百官志에 보면 高麗初에는 司徒라는벼슬이 없었고 第11代文宗以後 다시말해 始祖의 孫子분인 韓可稱의 老年期에서야 三公의 벼슬인 正一品司徒라는 官職이 있었으니 文宗以前분인 始祖의벼슬이 司徒였다면 語不成說이다. 이 司徒라는 벼슬이 後唐, 後晉, 北宋의 官職일 지 않는다.

또 文宗때 有司가 奏하고 王이 制할때 三韓功臣司徒邢明이라 할 정도라면 官職이나 門閥의 名聲이 抽代以後인 高麗朝까지도 三國時代와 三韓이라는 말을 썼고, 넷째로 文宗10年이면 王建即位後 139年이 經過되었음에도 같은 王朝가 아니라도 前朝의 功臣을禮遇하는 例는 國史에서 흔히 볼수있고 永業田舍니 舊業田廬이니 해서 永業·舊業이란 表現이나 功臣의 苗裔란 말은 功臣의 代가먼 子孫이란 뜻이니 始祖는韓可稱의 4~5代의 先祖가 아닌 傳來의 功臣, 名門閥이란 뜻이 아닐까 하는點 等으로 始祖邢明의 時代를 高麗代는 물론 아니였을것이고 百濟 或은 더 오래된 時代의 분으로 推定해 본다. 添言하고 싶은것은우리 貫鄕인 坡州는 地名을 峯城·瑞原等으로 變遷되었지만 西紀20年代에 創氏祖 諱斯鏞의 本鄕을 辰國이라 했고 諱可稱代西紀1010年에는 수代先祖님들의 傳來故鄕으로 記錄되어 있고 中始祖悌臣때 封土된 곳이기도한 現 坡州는 우리姓氏의 오랜 地緣故鄕이었으며 우리 廉氏의 姓源에關해서는 中國에서 傳來되었다거나 大廉氏의 後孫이니 王姓에서 派生되었다等 러 說이 있으나 確實한記錄은 없고 우리 廉氏는적어도 韓半島에서 部族社會에서 國家形成初期인 西紀20年代부터 이땅에 密着된 姓氏였다는 自負를 갖는다.

以上에서의 考察에서 될 수있는限 史料에 依해 說明하고 推定한 것이니 나름대로의 心證을 갖지만오 慮로 理解주시면 고맙겠다.

先祖이셨던분으로推定된다. 그 理由로서 첫째 위에 引用했든 高麗史原文中에서 「廉可稱軍器丞位之子三韓功臣司徒邢明之孫」의 解釋은 「廉可稱은 軍器丞이든 位의 아들이고 三韓功臣의 後孫」으로 司徒邢明의 理解될수 있고 文脈上으로 보아 諱位의 官職을 말할때에는 高麗朝의 벼슬이었기에 닫지 軍器丞으로만 記錄하고 諱邢明을 말할때에는 前朝 或은 그 以前이었기에 三韓功臣이라고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둘째로 三國時代인 高句麗15官職名에서나 新羅17官職및 百濟16官職制에서 司徒라는 官名을 찾을수는 없으나百濟南遷以後(27代聖王16年西紀538年) 22部中央政務官署中에 지금의 文敎部에해당되는 司徒部라는 것이있었고 三國中 百濟는 中國文化의 影響을 濃厚히 받은 北部流移民의 社會인辰韓에서 일어나 南遷後에도 中國과 文化的 交涉이 많아 中國의 官制에 따르點이 많았든 點과, 셋째로 三國時代에 왜 三韓功臣이라 했을까 하는 反問도 있겠으나 三韓이란 말은 高麗忠烈王34年 西紀1308年과 恭愍王11年 西紀1362年의 官職中 壁上三韓三大匡正一品이란 것이 있었고 百濟에서도 南遷後에 韓民族의 뿌리인 三韓에의 鄕愁와 痕迹을 보여 國號를 南扶餘로 한것等을 보아 三韓이란 말은 三韓時代 三國時代와 高麗朝에서도 韓半島에서 部族社會에서 國家形成初期인 西紀20年代부터 이땅에 密着된 姓氏였다는 自負를 갖는다.

資料도 未及했고 初學鈍才라 表現의 不足함을 自歎하며 글中 지루할만치의原文과 解釋 年代表示 史料의 根據等은 研究批判을 바라는配慮로 理解주시면 고맙겠다.

戊辰之禍의 內幕

廉 敏 燮

우선 筆者는 戊辰之禍의 記事를 쓰면서讀者諸賢의 明察과 誤解없길 바라는 바이다. 다시 말해서 事實을歪曲하여 先祖를 庇護하려 함이 아니라 史的根據를 두고 解剖學的見地에서 簡單明瞭하게 事實을 事實 그대로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諱는 建이며 號는若天이요 姓은 王氏이다 漢州松嶽郡 사람으로金城大守隆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韓氏이다。西紀918年6月丙辰에太祖(建)가 布政殿에서王位에 올라 國號를高麗라하고 年號를 天授라 하여 國基를 튼튼히 하고 마침내 三國을 統一하여 國威를宣揚하고 民族文化를 後世에 傳授하여 큰業的과 同時에 날로 發展街道를 치달아 歷年이 4333年 西紀1351年 高麗의 第31代 恭愍王 이름은 顓(전)이오 初名은 祺 號는 怡齋、益堂이며 忠肅王의 둘째 아들로서 忠穆王이 即位할때 江陵大君에 封해지고 忠惠王復位二年에 宿衛(王宮을 宿直하여 지킴)하기 위해 元나라에갔다 元나라 魏王의 딸 魯國大長公主와 結婚한 뒤 元나라의 指示로忠定王이 廢位되면서 王位에 올랐다。元나라가 衰退해지자 排斥運動을 일으키고 西紀1352年 恭愍王1年에 辮髮과 胡服等을 廢止 蒙古風을 廢止하고 西紀1356年에는 蒙古의 年號와 官制를 廢止하여. 文宗때의 制度로復舊하는 한편 國政을干涉하던 元나라의 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廢止하고 이어서 元나라皇室과 婚姻關係를 맺어 眼下無人格으로 權勢를 부리던 奇轍一派를 肅淸하고(奇轍一派를 肅淸할때 諱悌臣이 主導的力活을 하였음) 百年間이나 存續해온 元나라의 雙城摠管府를 쳐서 廢止하고 元나라에 빼앗겼던 嶺土를 回復했다。西紀1368年明나라가 建國하자 李仁任을 보내어 明나라와 協力 遼東에 남아있던 元나라의 殘有勢力을攻略하고 西紀1369年 李成桂로 하여금 東寧府를 치게하여 五老山城을 占領 國威를 떨쳤다。內政에 있어서는 政房을(高麗때 政務를 執行하던곳) 廢止하고改革政治를 試圖하여 國政을 日新하던中 金元命의 推薦으로 妖僧辛旽을 하고자 하였으나 愼妃만은 끝까지 抗拒하다 居士、法名은 遍照、字는 耀空 本貫은 靈山玉川寺寺婢의 아들로서어려서 중이되어 各地로 彷徨하다가 金元明의推薦으로 恭愍王을 만나 西紀1365年 眞平侯가 되고 守正履順論道 風紀 또한 極度로 紊亂해지자 洪倫과 韓安 이란 자가 益妃를 犯하여 姙娠까지하자 이 들 洪倫과 崔萬生等을 問罪코저하다가 도리어 그들 韓安·權瑺·洪寬·盧瑄·洪倫等에게 밤중에 寢殿에서 恭愍王이 弑害되었다。(魯國公主가 죽자 西紀1371年恭愍王20年 諱悌臣의 네째따님이 愼妃로 册封되었다。그러나 子弟衛의 洪倫 崔萬生 두 이들 江陵에 던져 죽이니 이에서 免한者가 거의없었다。被誅者의 妻와 딸을 沒籍하여 官婢로 삼으니 30餘人이였다。林堅味의家臣과 惡奴를 잡아베니 千餘人이라 하였다。

都吉敷의 아들 進士 俞吉는 邊方에 귀양보냈다。때에 崔瑩또한 斬刑의 對象이였으나 門下評理商議 禹仁烈의(禹仁烈은 李氏朝鮮開國 後開國原從功臣에 올랐음)女婿로서 崔瑩이 禹仁烈로 더부러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禍를免하였다고 記錄되어있다。(趙胖또한 李氏朝鮮開國二等功臣으로 復興君에封해졌음) 以上 高麗史의 內容이 事實이라면 奇轍一派의 專權時節에도 여러번 彈劾을 받았으나 無事했으며權臣 李仁任의 弄權時代에 그어찌 李仁任의魔手에서 벗어날수있었겠는가? 그뿐이랴 歷代의 名臣을 輩出한 名門巨族의 後裔로써 世祿田舍만 가지고도 足히 平生을 쓰고 남을 터인데 무엇이 不足하여 남의 財物과 國有地를 強占했단말인가 假令罪가 있다 하더라도 歷代 前任勳功大臣의 아들이며 當時 勳功大臣에게 叛逆罪가 아닌이 苛酷事가 있을수 있겠는가。萬一 避치 못할일이라면 本人에게 局限할 일이지 一千餘名의 無辜한 人命과 婦女子 및 襁褓에 싸인 天眞爛漫한 어린 피덩이까지 無참히 殺害했던가 아아 슬프다 이것이바로 勝者만이 가질수있는 特權이련가 戊辰西紀1388年禑王14年이해는 바로 唯我 坡州廉門의 沒落과 悲運의 해이며 新興 李氏朝鮮의 前哨戰이였던것이다。戊辰西紀1388年禑王14년 李成桂의 周到綿密한 策略에 依하여崔瑩을 完全히 葬奪되어李成桂의 專橫이 露骨化되었다。그런가 하면또 한 障害의 要人인 王은 定陵府院君 鈞의子孫으로써 西紀1389年王位에 迎立되었으나 李成桂一派의 거센 壓力과 干涉으로 因하여禑王으로써 神宗의 7代王 昌王父子를 殺害케하고 李成桂에게 政權을 完全히 葬奪되어李成桂의 專橫이 露骨化되었다。그런가 하면또 한 障害의 要人인 王은 高麗第34代王이자 高麗의 마지막 悲運의 仰天嘆息하며 李成桂의 策略에 欺瞞 當했음을 알고 怒氣沖天하여 小數의 軍士로써 大擧 開京에 亂入한李成桂의 大軍과 싸웠으나 워낙 衆寡不敵으로 敗戰하여 李成桂에게 逮捕되어 京畿道高陽땅에 流配되었다가 開京에押送되어 斬刑을 當했다。이로因하여 마지막 守舊勢力의 堡壘가 무너지자 勿失好機라 禑王은 王氏의 血統이 아니고 妖僧 辛旽의 아들이라는 陋名을 씌워 廢位賜死하고 뒤이어李穡과 曺敏修等의 強力한 主張으로 昌王이推戴되었으나 얼마뒤에李成桂一派에 依하여 廢位 江華에 流配된뒤殺害되었고 뒤이어 恭讓王은 高麗第34代王이자 마지막 悲運의 李成桂 敏燮 李成桂 敏燮 李成桂 敏燮

戊辰之禍의 內幕

廉 敏 燮

高麗史云 諱興邦을비롯하여 兄瑞城君諱劾을 받아 流配當했다 가 바로 戊辰西紀1388年禑王14년에 귀양 에서 풀려 三司左使上 護軍과 瑞城君에 進封되었거늘 어느 何間에 남의 財物과 國有地를 強占했단말인가 假令罪가 있다 하더라도 歷代 前任勳功大臣의 아들이며 當時 勳功大臣에게 叛逆罪가 아닌이 苛酷事가 있을수 있겠는가。萬一 避치 못할일이라면 本人에게 局限할 일이지 一千餘名의 無辜한 人命과 婦女子 및 襁褓에 싸인 天眞爛漫한 어린 피덩이까지 無참히 殺害했던가 아아 슬프다 이것이바로 勝者만이 가질수있는 特權이련가 戊辰西紀1388年禑王14年이해는 바로 唯我 坡州廉門의 沒落과 悲運의 해이며 新興 李氏朝鮮의 前哨戰이였던것이다。戊辰西紀1388年禑王14년 李成桂의 周到綿密한 策略에 依하여崔瑩을 完全히 葬奪되어李成桂의 專橫이 露骨化되었다。그런가 하면또 한 障害의 要人인 王은 定陵府院君 鈞의子孫으로써 西紀1389年王位에 迎立되었으나 李成桂一派의 거센 壓力과 干涉으로 因하여禑王으로써 神宗의 7代王 昌王父子를 殺害케하고 李成桂에게 政權을 完全히 葬奪되어李成桂의 專橫이 露骨化되었다。그런가 하면또 한 障害의 要人인 王은 高麗第34代王이자 高麗의 마지막 悲運의 仰天嘆息하며 李成桂의 策略에 欺瞞 當했음을 알고 怒氣沖天하여 小數의 軍士로써 大擧 開京에 亂入한李成桂의 大軍과 싸웠으나 워낙 衆寡不敵으로 敗戰하여 李成桂에게 逮捕되어 京畿道高陽땅에 流配되었다가 開京에押送되어 斬刑을 當했다。이로因하여 마지막 守舊勢力의 堡壘가 무너지자 勿失好機라 禑王은 王氏의 血統이 아니고 妖僧 辛旽의 아들이라는 陋名을 씌워 廢位賜死하고 뒤이어李穡과 曺敏修等의 強力한 主張으로 昌王이推戴되었으나 얼마뒤에李成桂一派에 依하여 廢位 江華에 流配된뒤殺害되었고 뒤이어 恭讓王은 高麗第34代王이자 마지막 悲運의

大宗會消息

羅州 都先山 登記移轉畢

忠敬公할아버지와 菊坡公、東亭公、淸江會 3 현제분의 祭壇을 모시고있는 羅州所在 都先山은 元來 羅州門中의所有로 되어있었던바 지난 85년6월22일자로그 일대의 임야와 전답일절을 大宗會所有로 이전등기를 畢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任員會 2回개최

①1985년 11월16일(金) 오후3시 光州大同譜所부근장소에서개최, 案件을 大田、保寧系 上系譜審議 大田系만 面註를 달기로하고 完了決。

②1985년 12월13일(金) 오후6시 大宗會 사무실부근장소에서개최。案件을 保寧系上系譜審議、1985년11월16일 임원회 決議에따라 임원중 5人小任員會를 構成審議、다음날 12월14일에 面註를 달기로、保寧宗親會長과 合議完了。

廉東鎬회장 受賞

▲本會會長 廉東鎬변호사는 1986년 1월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서울地方辯護士會 定期總會에서영예의 白鷺賞(30년이상 성실히 辯護士業에 奉職한者)을 받았다。

廉南燮씨 向歐

▲廉南燮씨(日新閣사장)는 3월4일부터 1개월간 예정으로 商務次 구라파로 출장。

蔚山지구 宗親會 發起人總會 예정

▲蔚山地區에서는 금년3월경 宗親會發起人總會가 있을 예정임。

陰城宗親會 總會 任員陣 새로構成

陰城宗親會에서는 1985년 10월20일 臨時總會에서 다음과같이 任員變動이 있었다。

▲회장=열홍현 ▲부회장=염재진 ▲총무=염종예 ▲이사=염천구·염광우·염종호 ▲감사=염종철·염홍민

動靜

▲廉泰勳씨(大宗會고문、서울宗親會長)=금번 서울 강남구 개포동 現代제2차아파트205동 703호로 이사。

▲廉弘燮씨(大宗會총무)=금번 서울 강서구 신월4동 436-17에서 524의7로地番변경。

▲廉吉正씨(大宗會고문、國會議員)=86년2월3일 父親喪。

▲廉琦燮씨(大宗會부회장、釜山宗親會長)=86년2월7일 夫人喪。

羅州 都先山 登記移轉畢

忠敬公할아버지와 菊坡公、東亭公、淸江會 3 현제분의 祭壇을 모시고있는 羅州所在 都先山은 元來 羅州門中의所有로 되어있었던바 지난 85년6월22일자로그 일대의 임야와 전답일절을 大宗會所有로 이전등기를 畢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任員會 2回개최

①1985년 11월16일(金) 오후3시 光州大同譜所부근장소에서개최, 案件을 大田、保寧系 上系譜審議 大田系만 面註를 달기로하고 完了決。

②1985년 12월13일(金) 오후6시 大宗會 사무실부근장소에서개최。案件을 保寧系上系譜審議、1985년11월16일 임원회 決議에따라 임원중 5人小任員會를 構成審議、다음날 12월14일에 面註를 달기로、保寧宗親會長과 合議完了。

廉東鎬회장 受賞

▲本會會長 廉東鎬변호사는 1986년 1월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서울地方辯護士會 定期總會에서영예의 白鷺賞(30년이상 성실히 辯護士業에 奉職한者)을 받았다。

廉南燮씨 向歐

▲廉南燮씨(日新閣사장)는 3월4일부터 1개월간 예정으로 商務次 구라파로 출장。

蔚山지구 宗親會 發起人總會 예정

▲蔚山地區에서는 금년3월경 宗親會發起人總會가 있을 예정임。

陰城宗親會 總會 任員陣 새로構成

陰城宗親會에서는 1985년 10월20일 臨時總會에서 다음과같이 任員變動이 있었다。

▲회장=열홍현 ▲부회장=염재진 ▲총무=염종예 ▲이사=염천구·염광우·염종호 ▲감사=염종철·염홍민

動靜

▲廉泰勳씨(大宗會고문、서울宗親會長)=금번 서울 강남구 개포동 現代제2차아파트205동 703호로 이사。

▲廉弘燮씨(大宗會총무)=금번 서울 강서구 신월4동 436-17에서 524의7로地番변경。

▲廉吉正씨(大宗會고문、國會議員)=86년2월3일 父親喪。

▲廉琦燮씨(大宗會부회장、釜山宗親會長)=86년2월7일 夫人喪。

의助戰元帥로서西紀1388年威化島에서回軍恭讓王을廢하고李成桂를推戴開國一等功臣이되고星山伯에封해졌으며門下左侍中이되었다) 等의 推戴를 받아 松京 壽昌宮에서 58歲로 即位하고 同年8月에는 恭讓王 또한 廢位와 同時에 原州杆城에 追放되어 恭讓君에 降等되었다가 三陟에 옮겨져殺害됨으로써 高麗社稷은 34代 475년만에 盡運되고 李成桂의 高等策略과 最後手段에 依하여 完全奪奪되었다。 翌年 西紀1393年2月 國號를 朝鮮이라 改稱하고 新興李氏朝鮮의 開國과 同時에 李氏朝鮮 建國의 當爲性과 合理化를 假裝하고 無所不爲의 暴惡事를 永遠히 隱蔽하기 위하여 前朝 忠臣들에 陋名을 씌워 子女들과 함께 無辜히 虐殺하고 高麗史를 完全抹殺하려 하였으나後世史家들의 준엄한 비판이 두려운 나머지高麗史를 屢次 歪曲捏造하였으나 그러나 너무나도 虛構에 차고 卑俗하여 即 朝鮮朝가成立되자 判三司事 鄭道傳 政堂文學 鄭摠等이 撰修하였고 그뒤 太宗14년 西紀1414年5月壬午에 領春秋館事河崙 監館事 南在 知館事 李叔蕃 卞季良等을 命하여 고치게 하였으며 世宗은 許詡의 意見을 받아들여 申槩、權踶 南秀文等에게 命하여 撰修케 하였으나論難이 일어나 頒賜가停止되고 뒤이어 世祖3年戊寅에 梁誠之 權擥 等이 王命을 받들어修正을 加했으며 崔恒朴彭年 辛碩祖 河緯地等 等을 거쳐 右贊成 金宗瑞 吏曹判書 鄭麟趾 戶曹參判 李光濟및 鄭昌孫等의 손을 거쳐所謂 高麗史와 高麗史節要가 改撰되어 이것이 正史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嗚呼라 敗者의 서름이여 헤겔의 辨證法的 論理로 본다면 歷史란 本是 矛盾덩어리며 그렇고 그런 것이라 하지 안했던가 또한 歷史란 勝者의손에 依하여 點綴된다는 이 嚴然한 事實을 秋毫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끝으로 잘못된 近視眼的 觀念에서 벗어나 讀者 諸賢의 冷嚴한判斷과 鞭韃있음 빌며 이만 頭序없는 拙筆功言으로서 대강 戊辰之禍의 언저리를 밝히면서 擱筆하는 바이다。

(筆者는 本報編輯委員)

格調높기로 소문난

中央禮式場
678-1336

新中央禮式場
678-3394~5
永登浦洞4가66(영등포로타리)
社長 廉昌燮

漢振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製品및金型製作
代表 廉洙漢
仁川直轄市北區曉星洞639
電話(032) 93-6567
93-7155

富川衛生公社
社長 廉在先
富川市松內洞317-1
電話 62-6886
62-1095

廉泰根

釜山市海雲臺區盤如洞1228-2

三和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廉琦燮
TEL NO:523-9001-4
TLX NO:SHIND K52413
수출장갑제조업체

釜山市中區中央洞4街87-5
(해양빌딩) P.O.BOX621

東邦海運株式會社
代表理事 廉德洙
TEL NO:463-8484~6
FAX NO:463-8487
TLX NO:DOBAS CO K53469

韓國姓氏

대개 中國의 姓氏制度

韓國에 姓氏制度가 생긴지 이미 數千年에 이르렀고 그 姓의 種類도 現在 2百50餘에 達하고 있으며 또 一姓中에도 그 貫鄕이 다른것이 數十或은 數百에 달하는 者가 있어서 그 淵源을 溯考하자면 참으로 複雜多端하여 짧은 時日에 도저히 자세한 硏究를 하기란 어려울뿐 아니라 姓氏란 元來 特權階級에서 自己네 種族을 神聖高貴化하기 위하여 지어낸 一種의 世襲形態에 稱號制度이기 때문에 姓의 觀念이 農厚하게 되면 스스로 階級의 觀念이 濃厚하여지는 弊害가 있으므로 現在 一部의 사람들은 姓의 制度를 根本的으로 否認하고 族譜 廢止論까지 있으나 그러나 姓의 制度는 그런 弊害가 있는 반면에 有益한 점이 더많을 뿐더러 또한 歷史가 이미 오래니만큼 一般이 慣習에 젖어서 이것을 도저히 廢止하기 不能할뿐 아니라 在來의 모든 歷史는 이 氏族制度를 中心하여 綿綿이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民族의 淵源을 말살시키고는 우리民族의 由來變遷과 其他 모든 在來의 階級觀念 또는 先祖崇拜觀念을 아주 초월하여 純全한 民族의 硏究 또는 歷史의 硏究材料로 삼아 이것이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그런데 姓氏의 由來를 考究함에 있어서는 上述한 바와같이 우리民族은 姓氏가 많으니 만큼, 其材料가 浩繁하여 일일이 다 枚擧할수없으므로 一例를 들어 간략하게 우선 姓과氏에 關한 意義및 姓과 本 그리고 韓國姓의 種類와 各姓의 盛衰變遷過程을 暫時 考察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自古로 姓과 氏를 별로 區分하지 아니하고 單純히 姓이라 할것을 한데混用하여 姓氏라 하기도 하고 또 姓을 氏와 完全同用하여 廉姓女나 朴姓女라는 것을 혹은 廉氏女라 朴氏女라고도 하지마는 東洋에 있어서 姓氏制度의 發生地라 할수있는 中國에선는 在來의 姓과 氏를 完全區分하고 따라서 그 意義도 다르게 하였다. 이제 참고삼아 中國의 여러文獻을 뒤져 보고자한다.

①書傳禹貢篇에는 賜土姓이란 句下註에 이르되 賜土姓은 所謂所生의 土(旣所生之地)로써 姓을 賜함이니 天子가 德을 세움에 그 所生으로 因하여 姓을 下賜함을 有德한 사람이 그 땅에 난 까닭이므로 그땅의 이름으로 姓을 주어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것이다 라고 하였고

②左傳公에는 姓은 生이라는 뜻이니 그것으로써 根本을 代代로 相生하게 하므로 百千世에 이르더라도 姓은 고치지 않고 族은 屬이란 뜻이니 그 子孫으로 더불어 서로連屬하고 旁支와, 別屬은 各自爲氏한다 하였으며

③史記註에는 天子는 姓을 賜하고 氏를 命하며 諸侯는 族을 命하나니 族은 氏의 別名이오, 또 姓은 百世를 統系하여 서로떨어지지 않게하는 것이며 氏는 子孫의 出生한 바를 區別하는 것이니 故로 世本에 姓이라 말한것은 上代에만있고 氏라 말한것은 下代에만 있는것이라 하였다.

④呂伯恭說에는 三代의 時代에 姓이란것은 그 先祖의 所自出을 統한다고하면 姓은 生也니 即其先祖의 所生系統을 表明하는것이오 氏는 姓의 所分即族也니 그 子孫의 支系를 分別함이다. 假令 廉氏 朴氏라하면 廉朴은 姓이오, 氏는 그 族稱이다. 그러나 上述함과 같이 우리나라는 自古로 姓氏를 그리 區別하지아니하였고, 中國도 古代에는 姓氏를 區別하였으나 現在에는 우리나라와 거이 無異하게 區別이없이 되었으므로 實際 廉氏朴氏라하면 그저 以後에는 姓氏를 合一하여, 혼인에 分別을 하고 地望으로서 貴賤을 밝혔다하며 또말하되 글자로는 古代姓字에는 女邊을 많이 꺾였으니 例를들면 姬 嬴 姒 姞의 類가 그것이다라고하였다.

以上의 여러가지 말을 綜合하여 간단하게 姓氏의 意義를 말하자면 百世라도 不變하는 것이오 代라 하는것은 그子孫이 스스로 分派된것으로 區別한것이니 數世에 한번씩 變하는것이라 하였고

⑤朱子語錄에는 또말하되 姓은 大德의 主腦되는 곳이오 氏는 後來次第의 分別하는곳이니例를 들면 魯는 本姓이 姬나 그 後孫에 孟氏 李氏가있는것과같다 하고 또말하되 天子는 生으로因하여 써 姓을 賜하고 諸侯는 字로서 謚을하여 因해서 族이되었으니 謚字는 本來 氏字와같은듯하도다 라고 하고

⑥通志氏族略에는 또이르되 三代以前에는 姓과 氏를 둘로 나누어 男子는 氏라稱하고 婦人은 姓이라 稱하되 氏로는 귀천을區別하여 貴者는 氏가있고 賤者는 名은있으나 氏가 없으므로 姓으로는 可히 氏라고 불을수있으나 氏로는 可히 姓으로 부를수없으며 또 혼인을 分別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姓이니 異姓이니 庶姓이니하는 區別이 있었으니 三代系한바니 百世라도 不變하는 것이오 代라 하는것은 그子孫이 스스로 分派된것으로 區別한것이니 數世에 한번씩 變하는것이라 하였고

⑤朱子語錄에는 또말하되 姓은 大德의 主腦되는 곳이오 氏는 後來次第의 分別하는곳이니例를 들면 魯는 本姓이 姬나 그 後孫에 孟氏 李氏가있는것과같다 하고 또말하되 天子는 生으로因하여 써 姓을 賜하고 諸侯는 字로서 謚을하여 因해서 族이되었으니 謚字는 本來 氏字와같은듯하도다 라고 하고

⑥通志氏族略에는 또이르되 三代以前에는 姓과 氏를 둘로 나누어 男子는 氏라稱하고 婦人은 姓이라 稱하되 氏로는 귀천을區別하여 貴者는 氏가있고 賤者는 名은있으나 氏가 없으므로 姓으로는 可히 氏라고 불을수있으나 氏로는 可히 姓으로 부를수없으며 또 혼인을 分別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姓이니 異姓이니 庶姓이니하는 區別이 있었으니 三代

時祭行事 盛況裡 거행

작년도 時祭行事는 例年에 準하여 매년 陰10월 5일, 陽85년 11월 16일(土)에 羅州都先山에서 있었다。해가 거듭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參札하는 宗人의 數는 점점 늘어나 금년도에는 當日 오전중에는 雨天에도 불구하고 5백여명에 達하였다。

韓國人 姓과 日本人 氏는 判異

—廉 敏 燮（本報 編輯委員）

〈1〉

古時代부터 所謂 帝王家들은 모두 姓氏가 있었으니 即 3王5帝는 모두 姓이있는 同時에 氏號를 달리하여 黃帝는 有能氏顓頊은 高陽氏 帝嚳은 高辛氏 帝堯는 陶唐氏 帝舜은 有虞氏 帝禹는 夏禹氏이고 別姓을 姒氏라하며 契는 商의 始祖로 姓을 子氏라하고 稷은 周의 始祖로 姓을 姬氏라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姓氏는 所謂 帝王家의 特權階級에 限하여 있었을뿐이요 其他階級은 가지지 못하였고 또 姓氏를 가지는것도 大槪가 그 所生之地로 姓을 삼어 所謂 因生以賜姓(即 以土爲姓)이라는 現狀에 그쳤으나 그後代부터 漸次範圍가 넓어져서 王公貴族等이 姓을 가지게 되고 그 姓氏를 짓는 標準도 所生의 土地에만 限하지 않고 或은 封邑으로 姓氏를 삼고 或은 官名으로 或은 字로或은 物名으로 事實로 姓을 삼았으니 例컨대 文王이 그아들 時叔을 沈에 封하여 그後가 沈氏가되고 太公望은 本是 姜姓이나 呂따에 封한故로 其後가 呂氏가 되고 太伯의 曾孫은 武王이 閻氏가되고 晉獻公은 畢滿을 魏에 封한 故로 其後가 魏氏가되고宋 公子殷은 褚에 寄食한故로 其後孫이 褚氏가되고 宋太公은 蕭에 寄食한故로 蕭氏가되고 楚賁皇은 苗에 寄食한故로 苗氏가되고 晉叔向은 楊에 寄食한故로 楊氏가 되고 杞의 後孫은 東에 寄食한 故로 東氏가되고 越의 後孫은歐山땅 陽에 寄食한 故로 歐陽氏가 된것같은것은 封爵으로 姓을 삼은것이요, 陳伯嚭의 後孫이 袁氏가되고 齊公子高의 後孫이 高氏가되고 衛公子惠孫이 孫氏가되고 宋公子樂文의 後孫이 樂氏가되고 宋司寇牛父의 後孫이 牛氏가되고 魯閔子騫의 後孫이 騫氏가되고 鄭의 國氏는 本子國의 後孫이요, 駟氏는 子駟의 後孫임。 같은것은 先祖의 名과 字로 姓氏를 삼은것이요, 司寇 司馬와漢時에 倉氏 庫氏 같은것은 官職으로 姓氏를 삼은것이요, 老子는 나면서부터 오얏나무(李) 木을가리킨故로 姓을 李라하고 趙奢는 御馬를 잘해서 馬服君이라 號稱한故로 其子孫이 因하여 馬氏가 되고 第五倫은 其先祖는 齊國의 諸田이나 園陵을 徙하는데 第次가 있으므로 第五로 姓을 삼고 車千秋는 本是 齊國의 田千秋가 老年에 小車를 타고 官署에 出入한 故로 時人이 車丞相이라하여 그後孫이 車氏가 된것같은것은 事와 物로서 姓을 삼은 것이다。(이 車氏와 韓國의 車氏와는 別個의 것임을 밝혀둠)

그리고 王公貴族의 有姓時期를 훨씬 지나서는 一般平民도 또한 모두 姓을 가지게 되었으니 一般平民은 어디까지나 平民이니만큼 帝王家나 王公貴族等과 같이 무슨 特別한 標準이없이 그야말로 되는대로 그때그때의 賜姓者 또는 自己의 생각나는대로 處地에 따라 지은 것이니 例컨데 西門이나 東門에 살면 西門氏 或은 東門氏라고하고 職業이 巫黨이면 巫氏 陶工이면 陶氏 石工이면 石氏 冶匠이면 冶氏가되고 或 남의 姓을 冒稱하기도하여 其例가 千百不一이라 하겠다。

現在 中國의 姓은 其種類가얼마나되는지 알수없으나 明의 洪武初에 吳沈의 撰한 千家姓考에 依하면 그때 中國의 姓은 1천9백68에 達한다고 하였다。韓國에도 往昔 檀君時代부터 固有한 姓氏制度가 있어서 檀君님의 祖와 父도 桓因氏 桓雄氏라 하고 그子孫은 鮮氏 又는 扶婁氏라하며 三國時代에 新羅始祖 赫居世는 姓을 朴氏라하고 高句麗始祖 朱蒙王은 姓을 高氏라하고 新羅第4世 脫解王은 姓을 昔氏라하고 13世 味鄒王의 6代祖 閼智(알지)는 姓을 金이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의 古代와같이 다만 王者에게 限할뿐이요 其外階級은 中國에서 移住한 小部分의 사람을 除外한 以外에는 아직 姓이 없었다가 新羅第3世王儒理王 時代에 6部村長에게 비로소 李·崔·孫·鄭·裵·薛等所謂 新羅6姓이란것을 賜하고, 高句麗 東明王은 再思 武骨 默居等 3人에게 次第로 克氏 仲室氏 小室氏의 姓을 賜하고, 百濟는 또 沙燕燕·劦·鮮·眞·國·木苫 8姓을 賜하였으니 이것은 韓國內 地人으로서 姓을 가지게 된 嚆矢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마치 中國의 王公貴族等의 有姓時代와 같이 極小數의 特權階級에만 限하였던것이고 一般民衆은 아직 姓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비록 姓을 가진 사람이라도 姓으로 公然하게 行世를 하지 않고 이름만으로行世를 하였다。

韓國俗談에 貧賤한 놈은 姓도 없다는 말은 바로 그時代를 두고 한말인지도 모르겠다。그러다가 三國의 中葉時代에 이르러서 中國의 大陸과 交通이 頻繁했을 때라 當時 盛大하던 隨 唐 文化의 影響을 받아서 高貴한 社會에서 姓의 觀念이 漸次濃厚해지고 高麗時代에 와서는 姓의制度가 아주 民衆化되어 在來이름만 使用하던 姓을 使用치 아니하던 平民級까지 姓을 使用하게 되었다。

이 劃期的變遷은 三國史記와高麗史에 나타나는 人物을 보아도 足히 짐작할수있다。이와같이 韓國사람은 中國人의 姓氏 制度를 模倣함으로 因하여 多數가 漢土의 大姓을 따라 行世하는 同時에 自己祖先과 열토당토않은 漢土의 古代帝王이나 聖賢 또는名門巨族의 後裔라(所謂唐種) 僞稱하여 自家의 姓譜를 假粧粉飾하고 門閥을 자랑하는 弊習이 流行하게 되고 따라서 事大思想拜漢主義의 한 發生原因이 되었다。

그러나 近世 甲午更張前까지도 賤民級 即 남의 奴隸나 그와同等의 級에서는 비록 姓이 있어도 그 姓으로 行世를 못하고 또 비록 兩班階級의 人物이라 할지라도 大逆罪같은 重罪를 진 사람은 所謂 去姓이라하여 姓을 떼어버리고 이름만 불렀다。그런點等을 보면 韓國에서 所謂 姓이란것은 여간 所重한게 아닌것이다。韓國사람의 姓에는 반드시本이란것이 있으니 本을 或 貫이라고도 하고 或은 本貫 또는鄕貫이라고도 하며 또 鄕貫을 거꾸로 貫鄕이라고도 한다。이 所謂 本이란것은 그냥 얼른 생각하면 우수운것 같으나 實은 男系血族의 始祖發祥之地가 되는것이다。即 그 根本을 가르치는것이 때문에 姓制度에 있어서는 絶對不可缺한 것이다。假令 一例로 같은 崔氏라 하더라도 全然 關係가 없는 까닭에 他姓과 다름이 없이 모든 相對的 行爲를 할수있는 것이다。그러나 男系血族中에 同姓異本이라도 그 先祖가 같으면 同姓同本과 같이 一家로 認定하며 서로 婚姻을 避하는 例가있으니 即 文化柳氏와 晉州 全州 豊山柳氏(高興柳氏外 諸柳氏 上同) 합 이라든지 密陽 朴氏와 其他 朴氏라든지 江陵金氏와 光州金氏 같은것이 그 一例라 하겠다。

〈다음號에 계속〉

贊助 및 廣告贊助者 名單

區分	姓名	金額
贊助	廉普鉉	900,000
廣告贊助	廉澤龜	100,000
〃	廉基奉	200,000
〃	廉銀山	100,000
〃	廉炅澈	200,000
〃	廉東秀	200,000
〃	廉英燮	500,000
〃	廉昌燮	100,000
〃	廉泰根	100,000
〃	廉東鎬	200,000
〃	廉吉正	200,000
〃	廉昌勳	200,000

이외에도 7名으로부터 廣告贊助申込이 있었음。(86년 3월현재)